* Intro

데이터 분석 직무에 있어서 이런저런 tool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있어서 domain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현업자한테 들은 바가 있다.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엔지니어가 애매하지만 나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금,

수학통계를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잘 사용하기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통계적 접 근 경험이 요구될 것이다.

나 역시도 대학원과 취업을 앞두고 고민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두 개의 직업군이 엄밀히 나눠지기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요즘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도,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런저런 서류보다, 공모전이나 프로젝트에서 제출된 ppt를 가지고 직접 리쿠르터 앞에서 발표도 해야한다.

이렇다 보니, 전산을 1전공으로 하지만 결국 직무 선택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 하다 못해 경영지원팀으로도 빠질 수도 있다.

* 정리

어찌됐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다할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팀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분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팀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고도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컨텐츠는 **캐글을 통해서 기본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거쳐진다.

1. 문제정의
2. 데이터 수집
3. 데이터 전처리 & feature engineering
4. 데이터 분석
5. 시각화 및 결과 도출

어차피 통계가 도구라면, 위 과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서 도구인 통계를 가져다가 쓰는 것을 목표로 팀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기에 문제 정의와 데이터수집이 이미 되어있는 캐글을 통해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competiton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방향>

1.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competition하기(4주) 🡪 괜찬은 공모전을 캐글에서 찾으면 해보기
2. 기본적인 공부를 같이해보고(스터디) 🡪 competiton

: 스터디자료 <https://www.boostcourse.org/ds214/joinLectures/28155>

1. 바로 공모전 🡪 <https://compas.lh.or.kr/> or

<https://dacon.io/competitions/official/235706/codeshare/>

일과

* 9학점
* 자격증
* 신앙공동체(?) 🡪 오석 공동체

일과

* 21학점 (전산4, 수통2, 교양1)
* DB(ㅠ), AI이노베이션, OS(ㅠ), **빅데이터 분석** (ㅠ)🡪 팀플
* TA
* **랩실(월(회의), 목(스터디)) + 4월부터 프로젝트**
* 자격증: 텝스(3) / 한국사(4) / 정처기(5)
* 4주정도 warming up 🡪

스터디 + 경쟁전